**성지순례 (그리스, 터키) 후기 09/30/2019- 10/11/2019**

**사도바오로의 발자취를 따라서 (김정숙이사벨라- 체리힐한인천주교회)**

작년에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순례를 다녀온 후 올해는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를 따라 그리스-터키 전도 여행지를 찾아보았다.

조금 일찍 뉴왁 공항에 도착한 우리 부부는 점심을 걸러 허기진 배를 채우려 간단한 식사를 시켜놓고 공항 카페에 마주 앉았다. 미지의 행선지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긴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도 있었다. 비행 출발시간이 가까워 오면서 프란치스코 회장님 부부를 만났다. 우리와 동행하는 일행을 만나 안도의 숨을 쉬었다. 긴 비행을 마치고 아테네 공항에 도착했다.

**Day 1 [ 리카베투스 언덕 (Lycabettus Hill) 아늑한 카페 앉아 시원한 그리스 맥주 한 잔 마시며 추억을 만들다]**

 샬롯에서 온 알베르또 형제님과 리디아 자매님, 아틀란틱시티에서 온 방지거 형제님과 헬레나 자매님 그리고 우리 부부 6명은 다른 순례객보다 하루 일찍 목적지인 아테네 공항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 마중 나온 요한 사장님과 함께 리무진으로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다시 택시를 타고 아테네 시내로 나왔다. 요한 사장님의 안내로 첫 번째 방문한 곳은 리카베투스 언덕이었다. 택시를 타고 올라가다 어느 지점에서 내려 얼마 동안 언덕과 계단을 타고 걸어 올라갔다. 길가 주변에 아름다운 야생화와 해안의 독특한 나무들이 눈길을 끈다. 전망대에서 본 아테네는 단층 건물들이 많아서 인지 확 트인 시가지가 한눈에 보인다. 멀리 건너편에는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 **“아크로 폴리스“ “파르테논 신전”(Acropolis, Parthenon Temple)**이 보인다. 전망대 한쪽에는 종탑이 보이고 또 다른 한쪽으론 조그마한 샌 조지 (St. George ) 정교회가 보인다. 투어 후 내려오는 길에 산 중턱 길목에 자리 잡은 아담한 카페에 들렸다. 방지거씨가 일행에게 접대해 준 시원한 그리스 맥주 한잔은 9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에 온몸의 열기를 식혀 주었다. 전경이 아름다운 카페에서 각지에서 만난 순례자들과 정겨운 담소를 나눈 뒤, 쏘는 듯이 따가운 햇살을 받으며 산 정상부터 시가지까지 내려오는데 무려 2시간 정도 소요했다. 루까씨가 오랜만에 운동을 했는지, 이렇게 말한다. 2년동안 걸을 걸음을 오늘 하루에 걸은 것 같다고.. 나중에 알았지만 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케이블카도 있었다는데.. ㅎㅎ그때 알았으면 아마도 그 통로를 이용했을 거다. 번화한 도시 시가지는 마치 명동 거리를 연상시킨다. 사람들 사이로 비좁은 골목길을 걷는데, 내 등 뒤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뒤돌아보니 젊은 20대와 40대 두 여인이 내 뒤에 바짝 따라오면서 내 백팩에 손을 댄듯하다. 아뿔싸, 지퍼는 이미 반쯤 열려있다. 다행히 귀중품은 깊숙이 안쪽으로 안치되어 잃어버린 물건은 없었지만 섬뜩했다. 가이드가 알려주기를 가방을 뒤로 메면 남의 것, 앞으로 메면 내 것, 옆으로 메면 내 것도 네 것도 된다고 귀 딱지가 앉도록 말해줬는데 … 여행 첫날부터 중요한 경험을 했다. 남은 여행을 무사히 마치기 위해 좀 더 조심해야겠다.

**Day 2 [ 바람 부는 날, 사도 바오로의 전교 여행지인 코린도 소나무 아래서 첫 야외 미사를 드리다.]**

조식 후 일행은 아테네 비행장으로 출발했다. 하루 뒤에 떠난 다른 팀과 만나 합류해서 버스로 이동하여 처음 투어한 곳은 **고린트(Corinth)** 운하였다 . 수에즈, 파나마 운하와 함께 세계 3대 운하라고 한다. 고린트 운하는 높이 80m 절벽 사이에 폭 23m 길이 6.3km 로 규모는 좀 적었지만, 이 운하가 완성되면서 **‘에게 해’( Aegean Sea)와 ‘이오니아 해’( Ionian Sea)**를 연결하므로 **펠로폰네소스 반도( Peloponnese)**를 우회하거나 반대쪽 항으로 옮기는 수고가 없어 380km의 항로가 단축된단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유대인 포로를 포함하여 노예 약 6000명을 동원해서 공사에 착수했고 여러 번 재개했으나 실패를 몇 번 거듭하면서 1893년에 프랑스의 기술에 힘입어 완공했다고 한다. 잠깐 구경하는 동안 절벽 사이 운하로 여객선들이 운항하는 것을 보았다. 다리 위에 만들어진 번지점프 시설에 눈길이 끌렸다. 더운 날씨에 에머럴드와 파란색 바다 사이로 다이빙해서 시원함을 느끼고 싶은 충동이 든다. 운하를 잠깐 구경하고 고대 코린트 유적지로 향해 떠났다. 고린도 유적지는 B.C.700년에 세워진 도시였으나 B.C. 146년 로마 장군 움미우스에 의해 파괴됐고 약 100년 후인 B.C. 44년 시저에 의해 재건되었다고 한다. 그 후 여러 차례 지진에 의해 파괴되었다가 1896년 미국 고고학회에 의해 발굴되었다고 한다. **고린트 고고학 박물관**에 들려 각종 유물들을 돌아보고 출구 쪽으로 나오는데 특이하게 목이 없는 동상들이 많이 세워져 있다. 목은 다른 곳으로 대피할 때 그곳에서 몸체 부분을 만들어 얼굴 부분을 끼어 맞췄다고 한다. 뒷면으로 돌아오니 우뚝 솟은 **아크로코린트( Akrochordite )**가 보인다. 높이 보이는 아크로폴리스는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고 전쟁 시마다 중요한 역할을 한 요새란다. 성문을 통과하면 산 꼭대기에 미와 사랑의 여신 **아포르디테 신전( Aphrodite Temple)**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코린트스는 상업과 무역으로 번성했으며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퇴폐적인 생활을 했다고 한다. 아포르디테 신전에 소속된 1000명에 가까운 여사제들도 매춘을 했다고 하니 사도 바오로가 고린도 전 후서를 통해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라고 부르짖었던 심정을 조금은 이해가 된다. 여기서 단체사진 컷

**아폴로 신전** 아크로코린트 건너편 쪽으로 이동하여 남성다운 태양신, 아폴론 신전에 도착했다. 현재 남아있는 코린토 유적은 움미우스에 의해 파괴되었으나 유일하게 남은 코린트 유적인 아폴론 신전이단다. 38개의 도리아식 기둥 중 지금은 7개만 보존되어있다. 화재와 지진으로 인해 손상되었고 그리스 신전으로 가장 오래된 신전이란다. 로마 초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 신전**은 지진으로 부서져 초라하게 기둥 몇개만 남아 있지만 신전 기둥 위의 조각은 무성하게 핀 꽃잎 모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우리 순례객은 옥타비아누스 신전을 마주 보고 사도 바오로의 전교 여행지인 코린트 소나무 아래서 인상 깊은 첫 야외 미사를 드렸다.

**비마** 로마시대 정치가들이 대중을 상대로 연설하는 연단으로 사용했다고 하며 당시 재판장으로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사도 바오르가 1년 6개월간 이곳 코린트에 머물면서 전도를 했다고 하는데 전도 중 율법과 질서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총독 갈리오에게 고발당했고 이곳에서 재판받았으나 로마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무죄로 풀렸다고 한다.

**레헤온 도로** 뻥 뚫어진 평지가 보인다. 유적지 중심을 가르는 길로 이 길을 따라가면 코린토 서항인 레카이온 항에 이르고 거기부터 로마로 가는 뱃길이 이어졌다고 한다. 진입 길 광장에는 상점이 몰려있고 레헤온 도로 양쪽에는 성당, 상점, 목욕탕 등이 있었던 흔적이 있다. 도로를 가로질러 점심 식사하러 계단을 올라 레스토랑으로 고고.점심 후 버스로 이동하여 최초의 올림픽 도시, 신들의 도시 아테네에 도착했다.

**아크로폴리스 언덕과 파르테논 신전 투어**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와 그곳 기념물은 고대 그리스가 세계에 남긴 가장 위대한 건축과 예술 표현물이다. 아테네 전역에서 보이는 언덕인 아크로폴리스에 위치하고 세계문화유산 제1호 **파르테논 신전**과 니케아 신전, 에레크테이온, 야외음악당, 원형극장 등 많은 유적지가 있다.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나의 수호신 아테네 여신이 봉헌된 곳으로 기원전 5세기에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 건설되었다.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 침공으로 파괴됐다. 한때는 델로스 동맹의 금고로 쓰였고 오스만 제국 점령 시에는 술탄으로 6세기에는 그리스도 교회로 바뀌었다가 터키-베네치아 전쟁 때 화약고 폭발로 건물이 심하게 훼손됐다. 신전의 남은 일부의 조각들은 영국인 엘긴이 매각하여 영국 대영 박물관에 보존되어 전시되었다고 한다.. 그리스의 재정난으로 현재 유네스코에서 파르테논 신전을 복원하기 위해 공사 중이란다.

 반들반들하게 닦여진 대리석 위로 아크로폴리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 길 가 옆은 온통 올리브 나무로 빼곡하다. 아테나 여신이 포세이돈과의 접전에서 아테네 시민들이 선택한 선물 올리브나무, 역시 아테네는 올리브가 주인인가 보다. 올리브 숲 사이로 아크로폴리스 언덕을 올라가는 기슭에서 루가씨가 걷기가 힘들다고 한다. 정상에서의 유적지를 보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하차하고 내려와 **아레오파고스 언덕(Areopagus Hill)** ‘ 아레스 신의 언덕’ 이라 불리는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아크로폴리스에서 내려오다가 보면 오른쪽 편에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 구절, 헬라어로 적혀진 동판이 보인다. 계단 위 언덕에서 사도바올이 파르테논 신전을 가리키며 연설한 **비마(Bema)** 가 보인다. 그 아래 올리브나무로 둘러싸인 벤치에 앉아 루가씨와 나, 그리고 요한 사장님과 함께 순례 장소 중에서 인상 깊었던 곳들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순례단을 기다렸다.

**Day 3 [그리스 최고의 절정 지대이자 수도원 밀집지역 메테오라로 향하다]**

조식 후 메테오라로 이동하던 중 휴게소에 들렀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러 밖에 나왔는데 , 바로 눈 앞에 높게 자리 잡은 웅장하고 장엄한 산이 보인다. 이곳이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12신들의 고향 ‘**올림프스산’ ( Olympos Mountain)**이란다. 여운을 남기면서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이번에 들린 곳은 페르시아의 침공으로 그리스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그리스가 완패한 장소, 영화 ‘300’으로 유명해진 곳 **테르모필레 ( Battle of Thermopylae)** (뜨거운 문)전투지에 들렸다.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의 승리로 페르시안 군이 앙갚음을 한 전투이다. 스파르타 **레오니다스 1세(Leonidas)** 왕이 300명의 스파르타 군사와 100만 군이 넘는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 군대와 용감하게 맞서 싸운 곳 인데, 이 전투에서 레오니다스 왕은 비록 전사했으나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웠다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동상에 그가 전투 중에 한 유명한 말 “와서 가져가 보라”(molon labe)가 여기에 새겨져 있다. 이 곳에서 해마다 그들의 죽음을 기리는 전투 대열 스포츠 행사가 열린다는데, 마침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에서 찾아온 스파르타식 병사 복장 차림을 한 사람과 만나 기념촬영을 했다. 가이드의 안내로 아기자기 한 길을 조금 걸어가다 보니 유황으로 유명한 온천 수가 나오는 조그만 개울터였다. 물가에 앉아 발을 담그고 잠시 쉬었다. 얼마 후 투어 목적지인 그리스 최고의 절경지 **메테오라**에 도착했다. 메테오라는 공중에 매달린, 하늘 바로 아래란 뜻이다. 그리스에서 아토스 산 다음으로 정교회 큰 수도원이 많이 밀집된 지역이다. 사암 바위는 풍화작용과 지진으로 인해 뾰족뾰족한 기암의 봉우리 같이 독특하게 만들어졌다. 꼭대기 바위 봉우리마다 자리 잡은 여섯 개의 수도원이 신비롭기만 하다. 그 당시 그 높은 꼭대기까지 건축자재를 어떻게 올려 수도원을 지었을까 궁금하다. 신과 가까운 곳에 머무르고 싶어서였을까? 우리 순례단은 **성 스테파노 수도원**에 들렸다. 수도원 입구에서 주는 치마를 두르고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선명한 이콘 성화들로 사방 벽면이 장식되었다. 메테오라 순례 후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자연의 신비를 보았다 와우~~. 길가에 버스를 잠시 세우고 “Aegean” 해안에서 지는 해를 바라본다. 붉게 타오르는 일몰의 저녁노을과 함께 멋진 풍광, 돈 주고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였다.

**Day 4 [사도 바오로가 유럽 전도여행을 위해 첫 번째 밟은 땅 까발라, 네압볼리 항구에 도착하다]**

조식 후 까발라로 이동 중 마케도니아 수도였던 **암비볼리**(Amphipolis)를 지나가면서 사도 바오로 이전 시대인 B.C. 4세기 경에 만들어졌다는 시골마을 길가에 우뚝 선 **사자 석상**을 보았다. 여기서 단체사진 찍고 스트루강을 지나 필립보로 이동했다. 얼마 후 사도 바오로의 첫 전도 지역인 **필립보** 입구에 도착하니 산 중턱에 자리잡은 커다란 원형극장이 보인다. 당시 사도 바오로는 이곳을 향해 열정으로 복음을 선포하였으리라. 동행 순례자 Dr. 최가 부른 가고파 노래 소리가 경기장 전역에 울려퍼졌다. 아틀란틱 시티 라헬레나, 윤모니카 자매님과 함께 순례객 모두가 사랑해를 열창했다. 길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대형 교회 건축 유적물들이 보인다. 바실리카 A, B, C 가 보였다. 특히 바실리카 C는 팔각형 형태로 만들었고 바닥은 모자이크로 섬세하게 처리됐다. 고린도식, 이오니아식 건축양식의 기둥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사도 바오로와 실라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힌 감옥터, 동서로 이어져 로마로 가는 길과 상인들이 걷던 길, 하수시설 등 당시 유적들을 보면서 예전에 이곳이 큰 도시였음을 볼 수 있었다. 잠시 후 일행은 사도 바오로가 리디아 여인을 만나 세례를 주고 기념한 그리스 정교회를 찾았다. 교회 안 돔에 그려진 모자이크 그림, 내부유리화, 세례터, 사도바오로와 리디아 성화가 인상적이었다. 일행 중 리디아 본명을 가진 (샬롯에서 오신 분과 여행 가이드) 두 분을 축하하며 교회 밖 조그만 강가에 앉아 야외 미사를 드렸다. 버스로 이동하여 얼마 후 사도 바오로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첫 번째 밟은 땅, **네압볼리**( Neapolis) 항구도시에 도착했다. 사도 바오로가 도착한 곳을 기념하기 위한 장소를 방문하여 단체사진 촬영 후 호텔로 이동했다. 우리가 머문 Lucy 호텔은 북쪽 ’Aegean ‘ 해변에 자리 잡은 전망 좋은 곳이었다. 잠깐 해변가를 걸었는데, 군데군데 서 있는 아기자기한 소나무가 마치 한국에 있는 많은 섬들을 연상시켰다. 호텔에서 본 언덕위의 하얀 집 들과 에게 해 바닷가에 비치는 야경이 환상적이다. 이날 프란치스코 본명을 가진 3명 ( Fr. 김, 라프란치스코, 알베르토 형제님)을 위한 축가를 부르고 축배의 잔을 올렸다. 훈훈한 저녁시간을 보낸 다음 날 아침, Conference Room에서 새벽 미사를 드리는데,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에게 해’에서 수평선 위로 점점 솟아오르는 황홀한 태양을 볼 수 있었다. 운 좋게도 예수님이 첫발을 밟은 항구 유럽 선교지 이곳에서 일출, 일몰을 함께 볼 수 있을 줄이야… 다음 목적지의 희망찬 순례가 기다려진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이곳에 얼마 동안 머무르고 싶었으나 아쉬움을 남기고 다음 목적지로 떠났다.

**Day 5 [항선으로 유럽에서 아시아를 가로질러 아킬레우스의 최대 견적장 트로이에 도착하다]**

조식 후 그리스-터키 압살라 국경선 통과 터키로 입국하면서 버스기사와 그리스 가이드 리디아씨와 이별하고 새로운 기사와 터기 가이드를 만났다 그리고 한국에서 온 프란치스코 형제회 성서학 박사 수사님과 함께 우리 일행은 터키 순례 여정을 펼쳐갔다.. 점심 후, 유럽과 아시아를 횡단하기 위해 Ferry에 탑승했다. 트로이 지역 목적지에 도착하여 출항할 즈음, 심한 파도와 함께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다. 휴우~ 큰 일 날 뻔 .. 하느님 무사히 땅을 밟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행선지로 트로이 전쟁에 종지부를 찍은 곳,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일리아드”에서 신들과 영웅들이 개입한 도시국가 트로이와 그리스 아카디아 연합군 사이에 스파르타왕 메넬라오스의 아내 헬레나를 되찾기 위해 10년 동안 벌어진 치열한 전쟁 장소 , 오딧세우스가 목마를 만들어 30명을 숨겨 성 안에 들어가기 위해 거짓으로 유인하여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곳이다. 여기저기에서 아직도 유적을 발굴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곳에서 나는 전쟁의 여신 아테네와 헥토르를 누른 아킬레우스 청동상을 기념품으로 장만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쁜 여자들 때문에 문제의 역사는 반복되는가 보다. 우리 일행은 투어 도중 치열한 전쟁만큼 이나 잊지 못할 심한 폭우를 만났다. 숙소를 찾아 아이발릭으로 이동

**Day 6 [성모마리아께서 마지막 생애를 보낸 에페소 산 위의 집에서 주일 미사를 드리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요한에게 성모님을 부탁한다고 말씀하셨다. 요한이 성모님과 함께 에페소로 오게 되며 성모님 생의 마지막 해를 보내신 곳 이란다. 이곳에서 주일미사에 제1독서를 낭독했다. 감개무량하다. 신선한 공기를 맡으며 언덕을 내려오는데, 주렁주렁 매달린 올리브와 은빛 도는 나무, 예쁘게 핀 각종 꽃들이 인상적이었다. 비탈길을 내려오는데 성지의 물은 마셔도 지장 없다는 요한 사장님의 설득으로 샘터에서 나오는 성수 한잔 들이키고 , 성모님께 소원을 빌며 편지 한 장 적어 벽에 묻어두고 왔다. 다음 방문한 곳은 **사도 요한의 무덤터와 성 요한 교회** 유적지다. 따가운 태양 볕에 경사진 언덕을 올라가는데 힘이 든다. 입구에 들어서니 ‘박해의 문’이란 문구가 보였다. 사도요한의 무덤터로 추정되는 곳에 올랐을 땐 경건해진다. 손만대도 치유된다는 전설이 있단다. 왠지 돌멩이 하나도 다시 눈여겨 보게 된다. 언덕에 올라오니 새로 복원할 교회 조감도를 만들어 놓은 유리 상자가 보인다. 그대로 만들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멀리 윗쪽 언덕에서 커다란 터키 국기가 흔들린다. 투르크 시대에 건축된 요새 란다. 순례 후 주위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고 가죽 염색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곳으로 쇼핑하러 행선지를 옮겼다. 가죽 옷 매장 입구에 들어서니 젊은 청년 둘이서 사과주스를 들고 우리를 접대한다. 그리고 우리들을 인도한 곳이, 패션쇼 장소다. 희미한 불 빛 아래 패션 모델 몇 명이서 음악에 맞추어 가죽 옷들을 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여러 종류의 가죽 옷들을 선보인다. 일행 중에 박마틸다양과 라프란치스코님이 선발되어 흥겨운 음악에 맞추어 모델 역할을 했다. **패션쇼**를 마친 일행은 매장에 들렸는데, 순례단들은 혈안이 되어 본연의 목적을 잃은 사람들처럼 쇼핑에 열중했다. 일행 대부분은 한 작품씩 챙긴 것 같다. 고가의 가죽이긴 하지만 부드럽고 가벼워 모두가 선호했다. 현재까지 방문한 쇼핑 중 하이라이트인 것 같다. 나도 남편 재킷 하나를 챙겼다. 아쉬운 쇼핑을 뒤로하고 다음 목적지인 **에페소(Ephesus)** 최대 규모 고대 도시 유적지를 찾아 이동했다. 에페소는 생활 방식과 수준이 높은 곳으로 다양한 종족이 모여 다신교와 향락에 젖은 도시였다고 한다 사도 바오로가 기독교 전파에 적극적이었으나 우상 숭배를 금하여 저항이 심했다고 한다. 입구에 들어서니 하드리아누스 신전이 보이고 조금 떨어진 곳에 온몸에 유방이 주렁주령 달린 다산의 상징 ‘풍요의 신’ 아르테미스상이 보이고 승리의 여신 니케야 신전도 보인다. 언덕 밑으로 셀수스 도서관이 보이는데, 고대 3대 도서관으로 뽑혔으며 1층, 2층으로 구분되어 있다. 기둥 사이에 지혜, 미덕, 통찰, 지식을 상징하는 4명의 여신상이 있다. 오리지널 작품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박물관에 소장되어있다고 한다.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남녀 공용 공중목욕탕과 공중 화장실이 보인다. 그 당시에는 목욕탕과 화장실 문화가 발달되었다고 하는데, 공중 화장실 안 에는 벽을 따라 가운데 구멍이난 좌변기가 쭉 진열되어 있고 그 밑 도랑으로 물이 흘러가면서 오물을 처리했다고 한다. 흥미롭게도 도서관 밑을 지하로 연결시켜서 건너편 홍등가로 연결하여 유흥장소로 관통하는 길로 사용했다 하니 그 당시 에페소인들의 방탕한 생활문화를 조금은 이해할 것 같다. 폐허가 되어 돌만 남은 흔적들과 시장, 위, 아래쪽으로 만들어진 아고라 시민 광장, 도시의원들이 모여 정쟁을 펼치고 법안을 의결하던 장소, 음악연주회와 문화강연에 관련된 행사장으로 쓰여진 커다란 원형극장과 경기장이 보였다. 예수님께서 사도바올을 통해 이곳 사람들에게 보내신 편지 중 첫사랑을 잊지 말고 꾸준히 전도하라고 경고하신 말씀, 성서에 익숙한 도시 에페소라서인지 유적지를 관심있게 돌아보고 간다. 바오로, 티모테오,사도요한님 전교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Day 7 [ 사도 바오로의 소아시아 전도7개 교회 중 현재 예배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곳, ‘폴리갑순교기념교회’(Polycarp) 에서 영광스러운 미사를 드리다]**

조식 후 ‘에게 해 ‘동쪽에 자리 잡은 3대 항구도시 상업과 관광의 중심지 이즈밀로 이동했다. 인구 대부분이 이슬람교로 둘러 쌓인 이곳 도시 중심지에 아담한 성당 **폴리갑 순교 기념교회**가 자리 잡고 있다. 사도 바오로의 제자 폴리캅은 서머나 총독의 제안으로 단 한 번만 가이사 로마 황제가 주라고 고백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으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일 순간에 주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하고 거절하다가 86세에 산채로 화형 당한 순교자라고 한다. 소아시아 7개 교회 중 아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영광스러운 이곳에서 우린 미사를 봉헌하였다. 미사 후 폴리갑 순교자 성인의 유해에 입맞춤한 후 숙소를 향하여 쿠사다시로 이동했다.

**Day 8 [사도 바오로의 첫 전도지 피시디아 안티오키아 성 바오로 기념교회에서 수녀님 두 분을 만나다.]** 조식 후 **콘야 ( Konya)**로이동했다. 콘야는 중앙아시아와 중동 일대를 다스린 셀주크 왕조의 수도였고, 예술과 학문의 장소이다. 셀주크 왕조 때 지은 가장 오래된 사원 알라딘 모스크가 있고 보수적인 메블라나 신비주의 종교의 영향력으로 몇 년 전만 해도 여자들은 스카프를 두르고 다녀야만 했지만 지금은 관광객들로 개방되었단다. 도시 중심시가지를 한참 따라가다 첫 전도지 피시디아 **안디오키아 성 바오로 기념교회 (St. Pau’s Church Konya)**를 찾았다. 이슬람교로 둘러싸인 곳, 가톨릭 신자가 거의 없는 이곳은, 치안 때문인지 교회 문이 굳게 닫혀있었다. 벨을 누르고 기다리니 얼마 후에 수녀님 한 분이 나오셔서 반갑게 순례단을 맞아주셨다. 이곳은 현재 예수의 작은 자매회 수녀님 두 분이 세계 각지에서 오는 순례객을 맞고 있단다. 성당 내부는 사도 바오로를 따라 개종하여 약혼을 파혼한 성녀 테클라 성화가 걸려있는데 인상적이다. 우리 순례단은 역사적인 사도 바올 기념터에서 미사를 봉헌하였다

 **Day 9 [예수님께서 사도바올을 통해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곳을 둘러보다]**

**사르디스 교회 (Sardis)**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 금은보석 세공업과 철학, 법률, 의학이 발달된 도시로 축제와 연회가 잦고 쾌락을 즐겨 하느님을 멀리하고 신앙을 잃어버린 도시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은 살아있어 보이나 죽은 교회라 꾸짖으시며 회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다. 이오니아식 아르테미스 신전, 제우스 신전, 연회 장소 등 부의 도시였던 만큼 유적들도 눈에 많이 띈다.

**티아디라 교회 ( Thyatira)** 소아시아 일곱 개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작은 마을로 유적은 거의 기둥 몇 개와 작은 석돌 뿐이다. 사도 바올이 세례 준 자주염색 상인 리디아의 고향이란다. 거짓여성 선지자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음란과 우상숭배로부터 유혹을 끊지 못해 교회에 주는 경고로 이단의 잘못됨을 묵인하지 말고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자 만이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고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보낸 교회라고 한다.

**라오디케아( Laodicea)** 유적지 입구에 ’ 왕의 길’이라고 불리는 도로가 있는데, 반들반들한 큰길이 보이고 도로 양 옆에는 기둥들이 있다. 그 옆으로 인도가 보인다. 지금도 한쪽에서는 유적 발굴과 실내에는 유리관 복원 작업이 진행 중이다. 당시 교통, 무역, 금융의 중심지이며 재력이 풍부한 도시로 부족함이 없이 상당히 부요한 도시였다 한다. 지도상으로 콜로새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과 파묵칼레에서 내려오는 뜨거운 물이 장 시간 흘러 내려오면서 미지근한 물로 변질되어 버린 이곳을 차던지, 뜨겁던지 하라고 요한 계시록에 기록됐다. 겉으로는 부유하나 궁핍한 교회, 사람중심의 교회라고 주님께서 호되게 꾸짖은 교회이다.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 회개하고 주님 곁으로 가라고 라오디아인들에게 보내신 경고이다.

 **필라델피아 교회 (Philadelphia)**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 칭찬만 받은 유일한 교회로 복음 선교와 형제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약하지만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교인들이고 하느님의 교회를 이뤘다고 칭찬하셨다. 유적으로는 안전하게 만들어진 커다란 성전 기둥이 남아있다. 버스로 이동하려고 걷는 도중 가이드는 길목에 있는 빵집에 들려 터키 빵을 사 왔다. 간식으로 먹어보란다. 참 부드럽다~. 순례 후 숙소로 이동

**Day 10 [ 파묵칼레 (Pamukkale)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지정 히에라폴리스 유적지 투어]**

조식 후 이동하여 **히에라폴리스( Hierapolis)** 유적지에 도착했다. 히에라폴리스는 페르가몬 왕 에우메네스 2세가 기원전 190년경 건설하기 시작한 도시다. 로마와 비잔틴 시대에 가장 번성했으며 왕족과 귀족들의 휴양도시로 번영했다. 이번 순례 중 이곳에서 제일 많은 관광객을 만난 것 같다. 언덕 위로 조금 오르다 보니 멀리 하얗게 덮여있는 장엄한 경관, 하얀 눈이 쌓인 것 같은 절경이 보인다. 온천 수에 탄산칼슘 성분이 오랫동안 석회 물로 침전되어 만들어진 석회 봉이다. **파묵** 뜻은 성이고 **칼레**는 목화의 뜻으로 영어로는 **“목화 성”**이라 부른다. 유적 보존을 위해 신발을 벗고 물에 들어갔다. 미지근하다. 협곡까지 따라 걸어가 온천 수에 잠시 발을 담궈 봤다. 아까운 온천 수에 목욕을 해보지 못한 안타까움은 있지만, 시간상 다음 투어로 발길을 옮겼다. 다음 찾은 곳은 로마가 다스리던 기원 후 2세기 원형 경기장, **고대 원형극장**을 방문했다. 현존하는 그레코-로만 극장 가운데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대리석으로 부조물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로열석은 따로 있고 사자와의 결투 같이 검투사 (Gladiator)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 경기장이라 한다. 여기서 상주하는 검투사와 사진 찍다가 ( 돈 많이 주고) 늦어서 다른 순례단을 기다리게 했다고 가이드한테 눈총 받았다. 공중 예의를 지키자. 죄송해요. 가이드님 이제 안 그럴게요.. 다음 유적지는 원형극장 건너편 산 중턱에 지어진 성 필립의 무덤과 순교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회 **(St. Phillip Tomb and Church)**를 찾았다. 서기 80년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곳에서 딸과 포교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한다. 5세기경 그의 묘 위에 순교를 기념하는 교회가 지어졌다고 한다. 주위에 많은 묘로 형성된 다양한 모습의 **네크로폴리스(Necropolis)** 석관들을 볼 수 있었다.

순례 후 쿠사다시 숙소에 도착했다. 저녁 후, 흥겨운 음악에 맞추어 춤추는 밸리 댄서의 황홀한 춤을 구경하며 호텔 노천 온천에서의 늦은 밤 진흙 마사지를 즐겼다. 아침에 샤워하는데 피부가 좀 매끄러워진 것 같기도 하고…ㅎㅎ 칼슘과 미네랄 덩어리로 하얗게 축적된 어젯밤 진흙 마사지 덕분인가?

**Day 11 [ 신 만이 만들 수 있는 경이로운 땅 가파도키아 (Gapadokya) 순례 ]**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경이로운 형태의 바위와 절벽이 어우러진 곳이다. 또한 수도원과 지하동굴, 지하도시, 야외 박물관등 독특한 도시의 아름다움을 지닌 곳이다. 하루 투어는 좀 모자라는 듯 아쉬움을 남기고 떠났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방문하여 바위와 절벽 사이를 하이킹하고 싶다. 꼭 타보고 싶었던 열 기구도 매진된 예약 때문에 못 타보고…

**카이막클리 지하(동굴)도시(Kaymarkli)** 그리스인들이 박해를 피해 숨어 지낸 카이막클리 지하도시를 찾았는데 수용인원은 3500명도 된다고 한다. 이 지역의 지하도시는 크고 적은 것들 200여 개 되는데 이곳은 데린쿠유와 더불어 큰 지하도시란다. 지하로 내려갈수록 천정이 낮아 부딪치지 않도록 머리와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라는 가이드의 말이 조심스럽게 들린다. 1층 바위에 원반형 회전문이 있는데, 외부 사람이 들어 오는 것을 막으려 만들어졌다고 한다. 부엌, 주방시설이 3층에 있고 4층까지 관람객을 허용하지만 더 깊이 지하층으로 발굴 중인 관계로 지하 4층까지만 관광객에게 개방되었다고 한다. 이곳 지하에서 데린쿠유 지하도시까지 연결 되었다고 한다. 지하도시 투어 후 버스로 이동하다가 미사를 드리려 버스에서 내렸다. 약 15분 정도 걸어 산 비탈길에 오르는데, 양쪽 길에는 가시덤불과 메마른 나무들이 널브러져 있고, 길 옆으로 아담한 굴이 보인다. 잠시 후 우리는 미사 장소인 동굴 앞에 멈추었다. 운전기사가 이 건물 열쇠를 받으러 같다고 한다. 20-3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의자도 마련돼 있고 미사 드릴 수 있는 적은 제대도 하나 준비되어 있다. 미사 후 점심은 **지하동굴 레스토랑**에서 한다고 한다. 기대가 된다. 버스로 이동 후 레스토랑 입구에 도착했다. 입구와 내부는 지하동굴이라고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완전 현대식으로 만들어졌다. **‘항아리 케밥’**이 유명하다고 한다. 식당 직원들이 양고기, 소고기, 야채를 꼬치에 꿰어 항아리에 구워서 만든 ‘항아리 케밥’을 넓은 토기 그릇에 들고 왔다. 이색적이지만 맛은 기대했던 것만큼 별로 였다. 점심 식사 후 들린 곳은 **괴레메 야외 박물관(Gereme Open Air Museum, Rock Church)**이다.기독교 박해자들을 피해 눈에 띄지 않은 지하나 동굴 속에 교회와 생활공간을 만들어 이슬람의 핍박을 피해 생활을 했다고 한다. 기독교인들과 수사들이 만든 거대한 동굴 교회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곳이다. 카파도기아 3대 교부 카이사리아의 주교 ’성 바실리오’ 삼위일체설’ 나지안스주교’ 니케아 신경 신학자 ‘성그레고리오’의 활동 근거지다.

**성 바실리우스( Basilius Kilisesi)** 붉은색을 사용한 이 교회는 괴뢰메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수도사의 동굴 교회란다. 예수의 상반신이 크게 그려져 있고 좌우 벽으로 2명의 사도가 말을 타고 남쪽 벽에는 ‘성 그레고리오’가 뱀과 싸우는 그림, 북쪽에는 ‘성 테오도르’ 성화가 있다.

**엘말르(Elmali) 교회** 정 중앙 돔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져 있고 바로 뒤 가브리엘의 성화가 있다. 가브리엘 천사의 왼손에 공 모양의 십자가를 들고 있는데, 모양이 사과 같다고 해서 ‘엘말르(사과) 교회’라 부른다. 최후의 심판, 마리아, 예수님, 세례자 요한 그림에서 예수님 손에 들린 성경책에 ‘나는 빛이다’라는 글이 쓰여 있는데, 성화들이 약간 훼손되었다.

**성 바르바라 (Barbara) 교회** 어린 아이가 낙서해 놓은 것 같은 무늬들로 십자가, 포도송이, 물고기 모양의 그림이 많이 보였다.

**일란르(Yilanli Kilisesi) 교회** 말을 타고 뱀과 싸우는 두 사람의 벽화가 있는데 ‘성 그레고리우스’와 ‘성 테오도르’가 이단과 싸우는 모습이란다. 그 옆에는 로마의 ‘콘스타누스 황제’와 어머니’ 헬레나 황후’가 그려져 있다.

**샌들교회(Kalikli , Sandal)** 교회 안에 들어서면 입구에 예수님 승천 그림 밑에 있는 바닥에 샌들 발자욱이 찍혀 있어 ‘샌들교회’라 불렸단다. 중앙 돔에 예수님과 천사장 그리고 네 가장자리엔 4대 복음서 저자가 그려 있다. 다음 방문한 곳은 기이한 바위들, 수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부서지고 닦여져 만들어진 기암들이다. 상상의 계곡, 폭이 좁고 깊은 골짜기에 특이한 모양의 바위들이 가득한 **데브란트 계곡**에 방문했다. 스타워즈 촬영지로 선택했을 만큼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은 곳 이란다. 너무 경이하여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다. 기둥 위에 돌을 얹어 놓은 듯한 버섯 모습의 요정의 버섯 **파사바 계곡**은 버스로 이동하면서 볼 수 있었다.

숙소로 이동 중 **위치히사르 성채( Uchisar Castle)**를 방문했는데 이곳은 로마시대 박해를 피해 기독교인들이 피신하여 만들어진 동굴집으로 사방으로 뚫려있는 구멍은 비둘기가 살던 둥지였다고 한다. 둥지에서 모은 배설물들은 포도밭 비료로 사용했다고 한다. 전망이 좋은 **위츠히사르 바위산**에 잠시 내려서 가파도키아 주변 파노라마를 찍으려고 내렸다가 내 왼쪽 귀가 나무에 걸려 피를 본 곳’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곳이다. 투어 후 숙소로 이동

**Day 12 [새벽 6시 30분 출발 마지막 순례지, 동서양 문명의 교차로 이스탄불을 향해 10시간 질주하다.]**

카파도키아에서 이스탄불로 가다가 앙카라를 지나는 즈음에서 우리는 **투즈(소금) 호수**를 만났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소금 호수라고 한다. 이곳 소금은 나트륨이 많이 함유되었는데 생산되는 소금의 70%를 터키인들이 식용으로 소비한다고 한다. 진흙과 여기서 생산되는 소금의 비율을 잘 맞추어 항아리를 만든다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항아리는 보온이 잘 유지되어 유명하다고 한다. 구름 사이로 햇볕에 비친 소금 호수가 바닥에 반사되어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 같기도 하다. 높게 하늘까지 뛰는 포즈로 여기서 사진 한 장 찰칵. 가파도키아에서 이스탄불까지 화장실 브레이크를 제외하고 버스로 10시간을 스트레이트로 질주해서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 스케줄이다. 무리하지 않을까 심한 걱정을 했으나 잠도 자고, 묵주기도도 하고, 노래도 들어가면서 우리 순레단 별로 큰 지루함 없이 이스탄불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찾은 곳이 **성 안토니오 성당( St. Antuan Katolik Kilisesi)**이었다. 이곳은 교황 23세가 바티칸 대사로 오랫동안 머물렀던 성당이다. 이스탄불의 가톨릭 성당 중 제일 큰 성당으로 영어, 터키어, 이탈리어, 폴란드어로 미사가 집전된다. 붉은 벽돌로 지은 건물로 200녀 년간 철거되었다가 재건되고 1912년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되었다. 입구에 교황 바오로 23세 동상이 서 있다. 스카프를 두른 무슬림 여성들도 인자하신 교황님 동상 앞에서 사진 찍고 있다. 우리 일행은 경당에서 미사 참례했다. 성당 안 내부에 아주 멋있는 스테인글래스가 은은한 조명과 함께 아름답게 비친다. 여기서 단체사진 촬영.

**Day 13 [ 동, 서양 문명이 교차되는 문화의 중심도시이며 매력의 도시 기다리던 이스탄불(Istanbul)을 찾아보다. ]**

조식 후 이스탄불 주교자성당, 마리아 성당을 찾아 순례단 마지막 미사를 드렸다. 미사 후 처음 방문 한 곳이 **마르마라해(Marmara Sea )** 와 **흑해( Black Sea)**를 연결하는 **보스포러스 해협 ( Bosporus)**이다. 흥이 많은 Dr. 최의 오솔레미오를 들으며 유람선을 타고 아시아와 유럽 양 대륙을 횡단하며 역사적인 절묘한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 해협을 사이에 두고 동쪽은 아시아 지역이고 서쪽은 유럽지역이다. 무역과 상업 중심지 구시가지는 술탄, 마흐메드 지역 으로 동쪽에 위치하고 로마, 비잔틴, 오스만 제국의 궁전은 대부분 유럽지역인 서쪽에 위치한다고 한다. 보스포러스 다리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국제 간선도로이고, 해협을 횡단하는 3개의 다리가 건설되어 있으며 2013년 해저 터널을 통과해 마르마라이 철도가 개통되어 운행 중이다. 유람선에 탑승 전 모자 파는 상인에게서 루가씨 모자와 가죽모자 하나 건짐.

**톱가프궁전(Topkapi Palace**) 보스포러스 해협 투어 후, 방문한 곳이 이스탄불 구시가지 사라이부르누(Sarayburnu) 언덕 위에 세워진 톱카프 궁전이다. 현재는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궁전과 달리 화려하지는 않지만 건축학적면이 훌륭하고 특히 `도자기, 직물, 무기, 86카렛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톱카프의 단검, 보석 등 볼 것 들이 많이 있다. 톱카프 궁전은 외전, 내전, 하렘 세 곳으로 나뉘어 있다. 각각 마당이 있는데 이 마당을 연결하는 문 들로 복잡한 조성도로 갖춰졌다. 1 중정은 ‘황제의 문’으로 일반인도 출입 허용 했고 2 중정’은 경의의 문’으로 일반인은 출입금지됐다. 참수터, 내각회의 집회 장소 용도로 쓰여졌다, 3 중정은 ‘지복의 문’으로 군주와 그의 측근만 출입 허용하고 군주 즉위식에 사용했으며, 보석과 보물 전시관 , 성물관, 과학관이 있다. 지복의 문 뒤쪽으로 ‘하렘’에는 1000명 정도 사람이 살았고 군주가 여자를 만나러 가는 비밀통로로 만들어졌다. 외국 사절을 접견하는 알현실도 있다. 4 중정에 궁전학교 ‘엔데룬에는 무사를 키우고 예의범절, 신사를 겸비한 학자로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을 만들어 오스만 조정의 고위직 행정관리로 배치했다. 톱카프 궁전의 주요 포인트로 황금색 돔으로 만들어진 바그다드 정자에는 갈라타 방면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보이고 오른쪽으로 정자 건물과 왕자들의 할례식과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한 공간으로 쓰여졌단다. 한쪽으로는 궁전 식구를 먹일 수 있는 주방이 보인다. 베란다에서 바라보는 보스포러스 해협과 마르마라 해협의 시원한 바닷가 전망이 아름답다. 시계 박물관, 도자기관, 보물관, 무기관, 황실 의복관, 이슬람 유물 전시관 등 볼거리가 아주 많다. 오스만 투르크 통치기간 400년간 돌마바흐체 궁전이 건립되기까지 총 36명의 술탄 중 22명의 술탄이 이곳을 사용했다고 한다.

**성 소피아 성당(Hagia Sophia) ‘Holy Wisdom’** 신성한 지혜란 말로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이다. 동방 정교회 대성당이자 콘스탄티노폴리스 세계 총대주교의 본산이다. 비잔티움 건축의 대표작이며 세계에서 몇 번째로 손꼽히는 로마 제국의 건축물이자 기독교 문화유산이다. 537-1453년까지 정교회로 사용했고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라틴제국에 의해 점령된 1204-1261까지 가톨릭 성당으로 사용했다. 1453-1931년 오스만 제국 술탄 마호메드 2세 점령기간에는 모스크로 사용되었는데, 이 당시에 십자가를 없애고 성화는 석회질로 칠을 한 흔적이 여기저기 보인다. 또한 메카의 방향을 나타내는 미흐라브가 더해졌다. 1935년부터 현재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검색대를 통과해서 건물로 들어가 입구에서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입구에 들어서자 유스티누스 2세가 그 시대 완성한 대천사 미카엘, 가브리엘이 모자이크 장식이 보인다. ‘황제의 문’ 안으로 들어서자 웅장한 돔이 보이는데 높이는 약 56m 지름 33m로 장엄하다. 정 중앙에 태양이 그려져 있는 돔은 40개 돌로 둥근 천장을 지탱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돔이란다. 천정 돔에는 희미하게 적혀있는 수많은 아랍어가 보인다. 입구에서 맨 맞은편 끝쪽으로 성모마리아 벽화가 눈길을 끈다. 반들반들하게 닦여진 언덕을 걸어 2층으로 올라가니 성당 전체가 훤히 보이고 천장 벽화들을 조금 가까이 볼 수 있었다. 이 정교회 대성당은 오스만 제국에서 가장 격식 높은 모스크 중 하나로 톱카프 궁전 쪽에 위치해 있다.

**블루모스크(Blue Mosque )** 모스크 안 벽면을 온통 푸른빛을 띠는 도자기 타일을 장식했기 때문에 블루모스크라 부른다. 술탄 아흐메(Sultan Ahmet Camil)는 유서 깊은 건축물 가운데 하나다. 돔 위에는 황금색 장식과 이슬람을 상징하는 별과 초승달이 있다. 매주 금요일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단다. 이곳에 들어가기 전 일행은 머리카락이 보이지 앉게 입구에서 주는 스카프를 쓰고 문 앞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 무슬림들은 모스크에 들어가기 전 손과 발 마음까지 깨끗이 씻고 들어간다고 한다. 돔 주변에 250여 개의 스테인글래스 너머로 반사되는 빛이 아름답다. 바닥은 푹신푹신한 카펫으로 깔려있어 맨발인데도 걷는데 전혀 불편함을 못 느꼈다.

**히포드롬 광장( Hippodrome)** 블루모스크를 나와 광장 쪽으로 걸어 나왔다. 비잔틴 시대에 말을 이끌고 경기하는 원형경기장이라고 한다. 앞쪽 분수대로 시작하여 고대 이집트 오벨리스크, 그리스 아폴로 신전의 청동 뱀 기둥, 유스티아누스 기념탑 등 세 개의 기념물이 서 있다. 우리 일행은 길가 노점상에서 군밤을 사 가지고 벤치에 앉아 까먹으면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 맛은 한국 밤 만 못하다. 광장에서 개인 사진 컷.

**지하저수지(예레바탄 지하 궁전Yerebatan Basilica Cistern)** 동로마 시절 유적지로 부족한 식수를 위해 만든 식수 저장고다. 안쪽으로 들어오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하다. 군데군데 설치한 전등으로 길을 밝혀주고 있다. 습도가 높은 지하는 서늘하고 으스스한 분위기가 꼭 귀신이 어디선가 나올 듯한 느낌이 든다. 예바라탄 시라이에 특별한 조형물 중 하나가 눈물의 기둥이다. 다른 기둥과 달리, 눈 모양의 조각이 기둥 전면에 새겨저있다. 지하 저수지의 습기가 기둥에 이슬로 맺혀 마치 눈물이 되어 떨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또 하나 가장 유명한 두 개의 기둥, 예레바탄 사라이의 끝에 새겨진 메두사 기둥이다. 한쪽 메두사는 거꾸로 새겨졌고 다른 쪽 메두사는 옆으로 새겨져 보는 순간 오싹한 느낌이 든다. 지하저수지 순례를 끝으로 이스탄불에서 여정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 순례의 밤’을 위하여 한국음식점으로 갔다.. 사장님께서 쏘아준 소주와 함께 건배하며 이번 순례의 막을 내렸다.

어머님의 구순잔치로 한국에 두 주간 다녀온 관계로 순례 후기가 늦어졌습니다.

 끝